



Laudato 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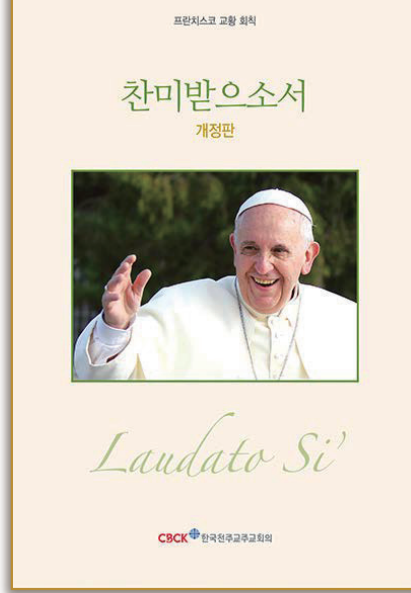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2021.5.24.~2028.5.23.)



천주교 인천교구



Laudato Si'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2021.5.24 ~ 2028.5.23)



인천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며 -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5년 5월 24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셨습니다. 회칙을 통하여 교황님은 기후위기로 심각해지는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이 필요함을 간파하시고 회칙을 통하여 통합생태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회칙은 12월에 개최된 파리기후협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듬해 2016년 8월 17일, 교황님은 ‘인간발전’이라는 교서(부록8)를 발표하시며 정의평화 창조질서와 보건 및 다양한 형태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목을 담당하는 교황청 부서로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¹⁾를 신설하였습니다. 교황님이 얼마나 우리 일그러진 인간 사회와 지구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치유하고자 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20년 5월 24일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세계 교회가 2021년 5월 24일까지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내고 이후 다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부록10) 또한 특별 기념의 해와 그 다음 칠 년이 참으로 은총의 시간, 곧 지구와 인류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참된 때(kairós)를 경험하는 ‘희년’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가톨릭 교회는 2021년 5월 24일부터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7년은 성서적 안식년과 희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주님의 안식년이다. (레위기 25,3-4)

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야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 아홉 해가 된다. ... 너희는 이 오십 년째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레위기 25, 8-10)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지구에 진정한 희년을 선사하는 이 대열에 모든 이를 초대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2021년은 파리기후협정 내용을 실행해가는 신기후체제 시대가 시작되는 해이며, 지난 2018년 과학자들이 IPCC 1.5°C 특별보고서²⁾를 발표한 이후 지구평균 온도 상승 1.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7년 뿐인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1.5°C가 넘으면 지구는 복원력을 잃게 되고 인류는 심각한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의 시급성은 지역, 국가, 세계를 망라하는 모든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총체적이며 일치된 응답이 필요합니다. 특히 풀뿌리 ‘대중 운동’, 곧 선의의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정의 평화 평의회, 사회복지 평의회, 이주사목 평의회, 보건의료평의회를 통합하고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노예, 이민, 난민 등을 위한 사목과 함께 환경사목을 담당하는 교황청 부서가 되었다.

2)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과학자들이 2018.10.1-5일, 송도에서 48차 총회 실시후 발표한 특별 보고서, 지구 온도 상승 1.5°C로 억제해야 기후 위기의 재앙적 수준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하여 2020년 10월 16일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특별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부록11)를 발표하고 실천지침(부록12)도 제시하면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 교회와 한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희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각 교구도 사목 교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우리 교구도 올해 사목교서에서 녹색순교(부록3)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인천교구도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자료집에는 환경사목부를 중심으로 사회사목국의 여러부서들이 마련한 7년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고 부록의 자료들, 특별지침(부록12)을 참조하여 찬미받으소서 7년여정 실행 주체가 되는 플랫폼으로 가정, 교구와 본당, 학교, 대학교/대학, 병원/의료시설, 기업, 농업, 수도회 등에서도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매년 실행평가를 해가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발한 실천이 이루어져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마침내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을 이뤄가는데 다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적 회개’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청되며 피조물 안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가 단지 ‘환경 보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천주교 주교단 특별사목교서 중에서

2021. 5.24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목 차

인천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며 1

목 차 3

- I. 회칙 「찬미받으소서」 이해 4
2.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흐름 5
3.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행목표(기본) 6
4.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실행기관) 7
5.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와 실행계획 10
- 5-1. 환경사목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연도별 세부계획 12

<참고자료>

- 부록1) 환경교육 영상자료 16
- 부록2) 생태사도직 하늘땅물벗 17
- 부록3) 환경회복실천 운동표(지구를 위한 기도) 19
- 부록4) 자원정거장/ 플라스틱 이삭줍기 21
- 부록5) 금주의 녹색순교 22
- 부록6) 환경교리학교 강좌안내 23
- 부록7)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24
- 부록8)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사회사목국 목표 실행계획 25
 - 경찰 교정사목부/ 생명사목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 이주해양사목부/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부
- 부록9) [자의 교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2016) 31
- 부록10)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2020) 32
 - 「찬미받으소서」 주간 전 세계 거행 33
 -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폐막행사 33
 - 특별 기념의 해에 출범할 특별 기획 33
 -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34
 -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통합 생태론 평가하기 「찬미받으소서」의 목표 35
 - 「찬미받으소서」상 제정과 「찬미받으소서」 시상 계획 36
- 부록11) 한국 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2020.10.16) 37
- 부록12) 특별 사목교서 실천지침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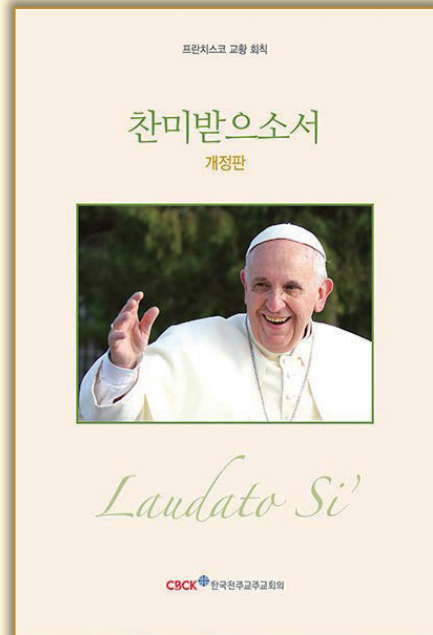
1. 회칙 「찬미받으소서」 이해

반포:

프란치스코 교황, 2015.5.24.

성격: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내용,
기후위기를 직면한 지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첫 환경회칙이면서
동시에 사회전체의 대 전환을
호소하는 사회교리회칙



주요핵심 내용

관찰

- 1. 공동의 집에 일어나는 일 파악하기(기후위기, 사회 불평등 등)
- 2. 피조물이 복음임을 인식하기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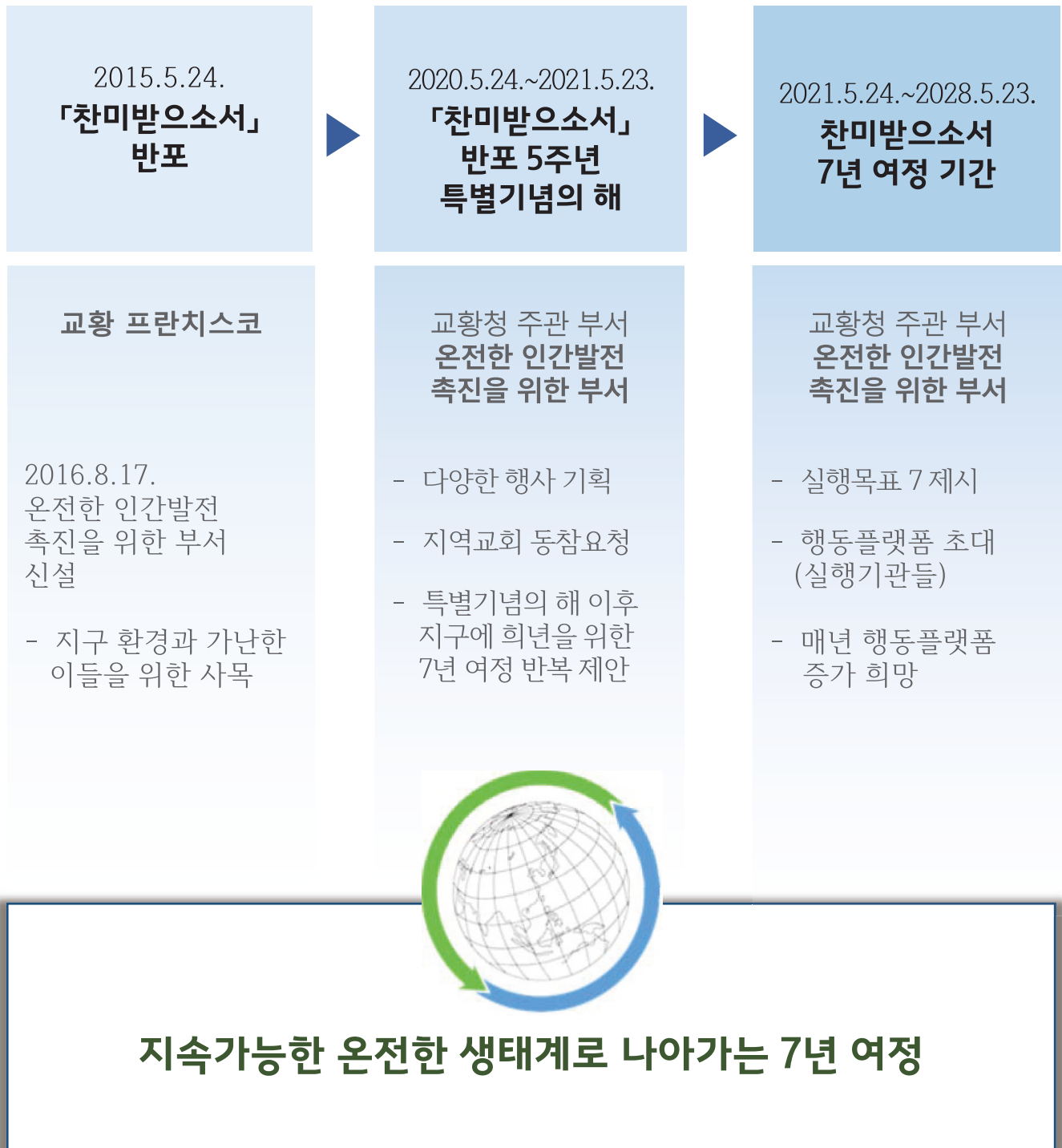
- 3. 생태위기의 근원을 성찰하기(기술 만능, 과도한 인간중심주의)
- 4. 지구를 돌보는 통합생태론 적용하기

행동

- 5. 접근법과 행동방식- 대화
- 6. 생태교육과 생태영성 파악하기



2.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흐름



3.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행목표(기본)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가 2020년 5월 제시한 실행목표이며, 이에 따라 각 실행기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년 평가, 보완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부록 10)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기,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기, 깨끗한 물 접근권 보장하기 등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원주민 공동체, 이민, 신종 노예의 위험에 놓여 있는 어린이 등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임신에서 죽음까지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3. 생태경제학

지속가능한 생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화석연료와 지구에 해로운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 철회, 재생에너지 투자

4. 검소한 생활양식

자원과 에너지 소비 절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삼가기, 채식 늘리고 육류 소비 줄이기,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공해를 일으키는 교통수단 이용 삼가기 등

5. 생태 교육

생태적 인식을 진작하고 구체적 행동을 북돋우기, 젊은 이들과 교사들과 교육계 지도자들의 생태적 소명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통합 생태론에 비추어 교육과정을 재검토 재정립하고 교육기관을 개혁해 나가기 등

6. 생태 영성

하느님 피조물 바라보는 신앙의 눈 회복하기, 경탄과 찬미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을 더 많이 접하도록 장려하기, 피조물에 중점을 둔 전례 거행하기, 생태교리교육, 기도, 피정, 교육 개발하기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대중인식 개선 캠페인 장려하기
지역과 이웃 생태계 안에 생태의식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장려하기 등

실행평가

7가지 실행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매년 보완하기



4.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실행기관)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촉진 부서의 기대(부록 10)

-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은

「찬미받으소서」의 7가지 실행목표를 수행하며
생태적 회심을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행동 단위체라 할 수 있습니다.

1.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가정
2.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교구, 본당
3.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학교
4.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대학교/대학
5.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병원/의료시설
6.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기업/농업
7.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수도권/수도관구



- 이 플랫폼(실행기관)들이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라 통합 생태론의 7년 여정 동안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세웁니다.

- 매년 이 플랫폼들이 두 배로 증가하길 바랍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찬미받으소서」에서 영감을 받은 관계망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망이 해마다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되고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부

5.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2021.5.24.~2028.5.23.)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1. 본당 환경분과 및 생태사도직단체 하늘땅물벗 조직 독려
(총 129개 본당 모두 조직/ 하늘땅물벗 1본당 1팀이상 구성)
2. 탄소중립을 위한 연도별 중점사항 실천:
예) 2021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1.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 돕기
2. 가난한 나라 코로나 19 백신 나눔 운동 참여
2. 환경 난민 돕기
3. 이주민 돕기

3. 생태경제학

1. 교구청, 기관, 본당 등 은행 거래시 해당 은행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도록 독려
2. 개인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도록 독려
3. 햇빛발전 협동조합 가능성 검토 및 추진 (본당, 기관 등)
4. 교회 건축물에 친환경적인 설비 강조

4. 검소한 생활양식

1. 환경회복 실천표/ 지구를 위한 기도 전교구민에 배부 실천요청
2. 녹색순교 실천사항 후보 게재- 2분 환경교리 자료 본당에 제공
3. 자원순환 프로그램 본당에 제공
4. 자원순환 전통시장만들기 캠페인



인천교구 환경사목부는 7년 여정 동안 교구내 본당의 환경사목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환경 관련 조직활성화 및 환경교육,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길과 자원순환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5. 생태교육

1. 사제, 본당 전교수녀, 신학생, 교구 관련 직원 환경교육 실시
2. 본당/기관 전신자 환경교육 실시 및 자료 제공
3. 지구를 위한 미사 후 미니 환경특강 실시(월 1회)
4. 주제별 환경교리학교 지속(상하반기, 각 7강좌)
5. 생태환경교사 양성 및 파견교육 활동
(성직자, 수도자, 교리교사 등 단기 집중코스- 30명 목표)

6. 생태영성

1. 지구를 위한 미사 지속 및 본당에도 확산 독려
2. 피조물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및 창조시기 기도자료 제공
3. 다양한 생태영성피정 기획 및 실행(관련 기관과 연계 가능)
- 인천의 다양한 자연 체험 피정-섬, 갯벌, 산 등
4. 감사노트 운동 확산

7.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1. 인천교구-인천시 자원순환사회 협약 실천 : 3無 성당만들기
(1회용품, 자원낭비, 음식물 쓰레기 없는): 자원정거장 운영 및 확대
2. 인천환경공단협약 실천: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3. 정치인 환경공약 모니터링 및 실천촉구 캠페인 참여
4. 가톨릭 기후행동 협력 활동

실행평가 (매년 5월말)

1. 7년 여정의 목표 실행 평가를 통하여 목표달성 및 점검
2. 교구 산하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실행기관)들의 실행평가에 따른 시상

5-1. 환경사목부 <찬미받으소서>7년 여정 연도별 세부계획

목표	1년차	2년차	3년차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1. 교구장- 7년간 사목교서와 서한으로 녹색순교 강조 2. 전본당 환경분과 조직독려 3.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 조직 독려(50/129본당) 4.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5. 자원정거장 운영 시도(2-5곳)	+	+
2.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응답	1. 가난한 나라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 기부 독려 2. 미얀마 민주화 지원금 기부독려	1. 환경난민 돕기	1. 나눔 냉장고 운영 시도(음식재료)
3. 생태 경제학	1. 교구 기관, 개인들의 거래 은행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	+
4. 검소한 생활양식	1. 환경회복 20가지 실천표 (뒷면:지구를 위한 기도) 전교구민이 활용하게 독려 2. 자원순환 프로그램 진행 (폐폰, 폐건전지, 플라스틱 이삭줍기, 등)	1. 햇빛발전 협동조합* 가능성 연구 및 설명회	1. 햇빛발전 협동조합 시범 본당 출범
5. 생태교육	1. 대상별 환경교육 실시 2. 본당/기관 전신자 환경교육 3. 금주의 녹색순교 실천사항 - '2분 환경교리' 자료제공 4. 지구를 위한 미사 후 미니환경특강 5. 상하반기 환경교리학교 지속 6. 생태환경교사 양성 준비	+	+
6. 생태 영성	1. 지구를 위한 미사 지속 2. 생태영성피정 준비 - 유관 기관과 연계 구상 3. 피조물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및 창조시기 지내기	+	+
7. 지역, 국가, 국제차원 피조물 보호 공동체적 능동적 참여	1. 제주교구 협약(2018) 실천: 공동 심포지엄 개최(제주 주관) 2. 인천환경공단 협약(2020)실천: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3. 인천시와 인천교구협약(2021.4.14.) 3無 성당만들기 독려 -1회용품, 자원낭비, 음식쓰레기無 자원순환가게 프로그램 연계 4.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 미사 참석	+	+
실행평가	매년 5월말 실행평가 실시/ 다른 행동 기관들을 위한 시상시 실행평가 요청 가능		



● + 표는 1년차 계획들이 지속됨을 의미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 1. 하늘땅물벗 전담 인력 편성 고려 2. 환경분과장 교육 연1회 3. 자원정거장 (40곳 목표)	+ 1. 자원정거장 (50곳 목표)	+ 1. 자원정거장 (60곳 목표)	+ 1. 자원정거장 (70곳 목표) 2. 환경우수 본당 시상 3. 우수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시상
1. 해수면 상승 피해지 돕기 독려	1. 생명농업 농부들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건의	1. 환경난민 돕기 2. 이주민 돕기	1. 도농 직거래 홍보로 농민 돕기
+ 1. 햇빛발전 협동조합 본당내 확산	+ 1. 햇빛발전 협동조합 본당 확산 지속	+ 1. 친환경 일자리 사례 제공	+ 1. 친환경 일자리 사례 제공
+ 1. 아나바다 코너 운영	+ 1. 텃밭가꾸기 확대 독려	+ 1. 클린하이킹/플로깅 홍보 (등산, 조경시 거리 청소)	+ 1. 과소비 줄이기 강조
+ 1. 환경기반시설 견학 (선별장)	+ 1. 환경관련시설 견학 (재생에너지 모범 사례지)	+ 1. 환경관련시설 견학 (재생에너지 사업현장)	+ 1. 환경관련시설 견학
+ 1. 찬미받으소서 피정(섬) 2. 감사노트 운동 확산	+ 1. 찬미받으소서 피정(성사)	+ 1. 찬미받으소서 피정(숲)	+ 1. 찬미받으소서 피정 (모든 형제애)
+ 1. 탈원전 캠페인 지속	+ 1. 기후악당 기업에 반대 캠페인	+ 1. 해양정화 활동 독려	+ 1. 청소년 기후행동 협력
매년 5월말 실행평가 실시/ 다른 행동 기관들을 위한 시상시 실행평가 요청 가능			

*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대한 부연 설명(12쪽 참조)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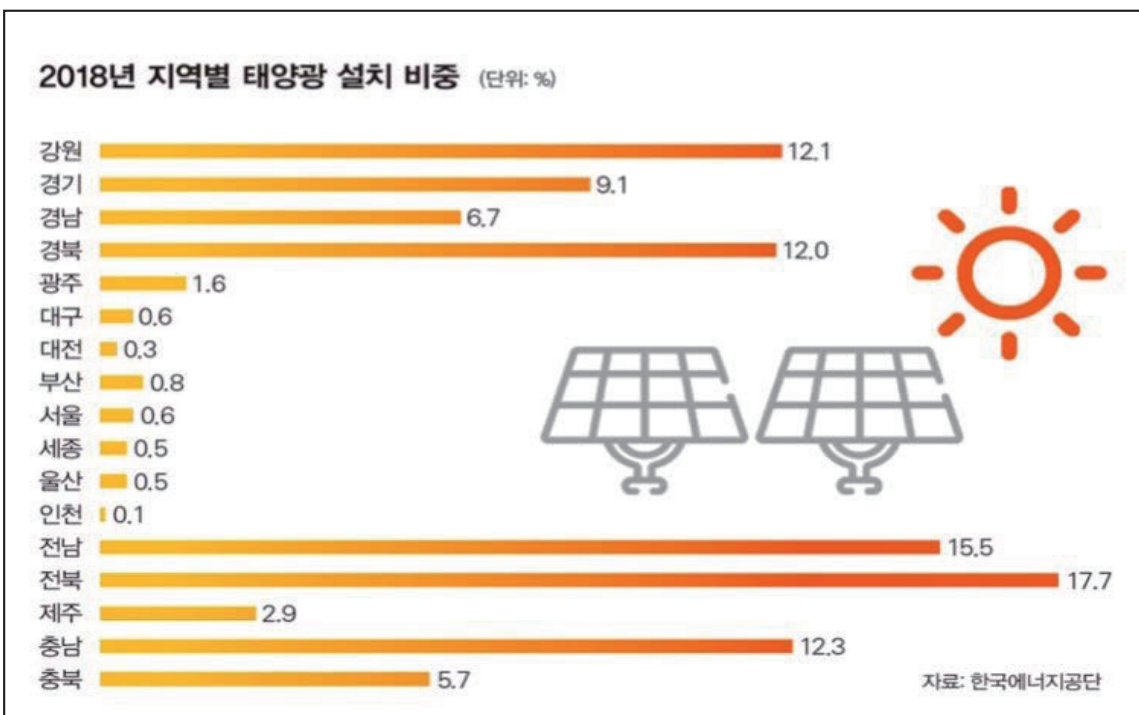
- 1)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필요(에너지분야 - 온실가스 배출 70% 이상 차지)
 절전소 운영 시급(전기 절약 실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급
- 2) 세계적 흐름: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운동
 수출 기반 한국 기업에 거래 압박(재생에너지로 생산촉구)
 석탄발전이나 핵발전에 의한 에너지는 RE100에서 제외됨
 탄소국경세 부과(2023년): 유럽연합(EU), 미국 등

판단:

- 1)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에 의존,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율 최저
- 2) 인천: 탈석탄 동맹 가입(2020.11.26)- 향후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예상

행동:

- 1) 성당 건물은 지붕이나 주차장 등의 유휴 공간을 제공- 태양광 설치(자연 훼손 방지)
- 2) 방법: 협동조합 형태로 신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출자하여 비용 부담 및 운영
 전기 생산에 따른 수익은 조합원들이 분할, 성당엔 소정의 기부
- 3) 성공사례: 최초의 선례- 대전교구 갈마동 성당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불휘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운영 (2019년 설립, E-mail: bulhuisun@hanmail.net)
 에너지 자립 마을 공동체 확산 중



참고 자료

- * 부록 1-7는 환경사목부에서 실행하는 몇가지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 * 부록 8은 사회사목국 소속 여러 부서가 준비한 7년 여정 계획안입니다.
- * 부록 9-12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하게 되는 배경과 관련된 교황청 문헌과 한국주교단에서 발표한 문헌의 전문을 수록한 것입니다. 각 단위체에서 7년 여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문헌들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록1) 환경교육영상자료

환경교육에 대해 몇가지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외에 환경 관련도서, 미디어 자료는 의정부 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자료집 ‘행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후 위 기	기후변화 이대로면 10년 뒤 해운대, 인천공항 잠긴다(4분)  https://youtube/s4OEN5lsCgg	기후위기 과장 아닌가요? (4분35초)  https://youtu.be/4n3mifBycuE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 부 정하는 10년 후 팩트(8분 45초)  https://www.youtube.com/watch?v=cMBNmmsPSIQ
육 식	인간의 육식과 지구 환경 (4분 5초)  https://www.youtube.com/watch?v=Ax7bnasBdSI	채식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조길에 박사 (39분 25초)  https://www.youtube.com/watch?v=RvbPAEsV89E	기후변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QnA)(10분 22초)  https://www.youtube.com/watch?v=Rwkz1A0LaVY
에 너 지 전 환	파리협정_정의로운 전환_ ETUC(6분30초)  https://youtu.be/jmCUH0-dEjE	기후위기 그만! “석탄발전 대탈출”해요!(4분30초)  https://youtu.be/Re_zRpEmryI	기후위기 때문에 삼척으로 갑니다.(3분40초)  https://youtube/KiaR/huWAR4
플 라 스 틱 / 생 물 다 양 성	쓰레기 대란 시대 꿀팁, 분리배출 완전 정복(12분23초)  https://www.youtube.com/watch?v=jnpBtp442V0	홍수열 소장, 코카콜라가 썩지 않는 플라스 틱 거부한 이유(8분4초)  https://www.youtube.com/watch?v=vXYuQagq48o	기후위기와 점박이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10분10초)  https://youtu.be/7RGJ6tBgEE



부록2) 생태사도직 단체 - 하늘땅물벗



창립: 2016.10.4 주보: 성 프란치스코 인준: 2017.2.1 서울대교구 정식 인준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에 영향을 받고 한국에서 창립됨)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인간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이다.
우리 인간과 하늘 땅, 물은 벗이 되어 서로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관계임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적인 책임을 실천하는 생태사도직 단체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본당에서 환경사목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만큼 환경회복을 위해 누룩처럼 봉사하는 단체가 필요한데 하늘땅물벗은 그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 단체가 전 교구에 확산된다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큰 결실이 될 것이다.

인천교구에서 활동하는 하늘땅물벗

2019. 2.1 인천교구 하늘땅물벗 정식 인준, 본당 환경분과 산하 생태사도직 단체로 활동 시작

설립과정: 인원모집- 환경사목부에서 하늘땅물벗 안내교육 제공- 벗 운영(승인절차 포함),
하늘땅물벗 길잡이에 따라 회합, 기도, 활동 나눔, 환경가르침에 대한 공부

2021년 사순절 담화문을 통해 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하늘땅물벗 단체가 확산되기를 강조하였다.
현재 본당과 기관에서 10여개 팀이 활동 중이며 찬미받으소서 7년여정을 계기로 129개 본당에 1팀이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활동 중인 하늘땅물벗 팀은 본당 내 환경사목에 활기를 주고 있다.

(중략) 그러기에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다음의 세 가지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1. 녹색 순교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몇몇 본당에서 시작하고 펼쳐지고 있는 생태 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을 모든 본당에 조직하여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패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끓여 먹는 가장 쉬운 노력부터 시작합니다.
3.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기를 권유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을 전년 대비 5%이상 줄이며 혜택을 받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입니다. 각 본당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가입하여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2021 사순절 담화문에서

인천교구 가정3동 하늘땅물벗- 나비의 벗 활동사례



쌀뜨물 발효작업을 함께하며 세제로 사용하고 수질 정화에 일조 하였다.



종이 우유팩을 모아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지나 종량제 비닐 봉투로 교환 자원 순환에 협력하였다.



냉장과 정리를 정기적으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동료들과 공유하였다.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장가방을 만들기 위해 재봉틀을 구입하고 직접 제작하여 신자들에게 배부하였다.



냉동팩을 모아 인근 시장 가게에 전달하였다. 이 소식을 가톨릭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다.



부록3) 환경회복 실천운동

환경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도록 A4 크기로 양면 인쇄하여 전 교구민에 배부한 표

쓰레기	1.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용기 사용 절제하기 2. 개인 물병 휴대하기 3. 생수 구매 자제하기(플라스틱 분해, 500년) 4. 물건 구매시 비닐봉지 거절하고 장바구니, 비닐대용 주머니, 필요한 그릇 휴대하기 5. 일회용품 사용 멈추기(물티슈, 빨대, 비닐장갑, 랩 등) 6. 쓰레기 분리배출 바르게 실천하기 (내용 비우기-헹구기- 상표 분리- 재질별 분리배출) 7. 택배 자제하고 과대포장 개선 요청하기
육식	8. 육류와 유제품 섭취 줄이기 9. 채식 늘리기(축산업이 온실가스 절반 배출)
음식쓰레기	10. 제철 음식, 우리 농산물 구매하기 11. 배달음식 절제하기(음식, 일회용품 쓰레기 줄임) 12. 음식 남기지 않기 13. 필요한 양만큼 요리하기 14. 냉장고 정기적으로 정리 하기
물	15. 샤워시 물 아끼기(샤워시간 단축, 양동이 사용 등) 16. 설거지, 양치질, 세수시 물 받아서 하기
에너지	17.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성당 포함) 18. 대중교통 이용하기(자전거 이용하기 포함) 19. 에너지 절약하기(전등, 냉난방기, 승강기 등) 20. 사용 후 전기 플러그 뽑아 두기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환경회복실천운동표 뒷면)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부록4) 자원 정거장/ 플라스틱 이삭줍기



자원정거장

자원낭비를 막는 지름길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올바르게 하는데 있다 쓰레기냐, 자원이냐는 분리배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천교구청 환경사무부에서는 자원정거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자원이 될 수 있는 몇가지 (투명페트, 일반 플라스틱류, 비닐류, 병류, 캔류, 알루미늄, 종이, 스티로폼등)를 올바르게 모아서 기관의 일정한 수거 장소(자원정거장)에 보관한다. 일정량이 되면 쓰레기장에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내 고물상이나 시청의 자원순환가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배출함으로써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은 증가시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2021년 4월 14일 인천교구는 인천시와 환경 협약을 맺고 3無성당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3무:1회용품, 자원낭비, 음식물쓰레기 없는)

자원정거장은 이 협약을 실천하는 일환이기도 하며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동안 이 시스템을 교구청부터 시작하여 각 본당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이삭줍기

자원정거장 일환으로 '플라스틱 이삭줍기'(병뚜껑만 모음)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쓰레기 처리과정중 선별장에서 병뚜껑은 몸체와 재질이 달라 분리 선별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 중에 작은 병뚜껑을 따로 골라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자원임에도 대부분 소각처리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려고 가정에서부터 따로 병뚜껑만(PP재질만) 이삭줍기 하듯이 골라 선정한 선별업체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자원회수에 일조하려는 것이다.

각 본당에 공문을 보내어 플라스틱 이삭줍기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고, 환경분과나 하늘땅물벗 단체가 봉사 주체가 되어 각 본당에서 수집한 병뚜껑은 직접 지정 선별업체로 우송하고 있다. 작은 일이지만 본당신자들이 다함께 쉬운방법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좋은 캠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록5) 금주의 녹색순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2021년 사목교서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녹색순교를 제안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20년 대림시기부터 주보 1면을 이용하여 ‘금주의 녹색순교’라는 고정란에 매주 한가지씩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탄소중립의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인천주보

제2668호

2021년 5월 2일 |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입당송 | 시편 98(97), 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9, 26-31

화답송 | 시편 22(21), 26ㄴ-27, 28과 30ㄴ, 30ㄷ-32(㉔ 26ㄱ 참조)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자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2독서 | 1요한 3, 18-24

복음 환호송 | 요한 15, 4, 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 요한 15, 1-8

영성체송 | 요한 15, 1, 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전기절약 - 장시간 요리 피하기(구운 계란, 건조 과일 등-8시간 소요)



부록6) 환경교리학교 (정기 강좌) 안내문



제11기 환경교리학교

주제: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중립으로! -탄소중립의 다양한 길-

일 시 : 4월 19일~5월 31일(월요일 저녁 7-9시), 사회사목센터 4층

대 상 : 환경 교육 희망자

수강료 : 50,000원(환경분과장, 성직자, 수도자 무료/ 하늘땅물벗 회원 50% DC)

송금계좌 : 예금주-(재)인천교구천주교, 우리은행 1005-402-233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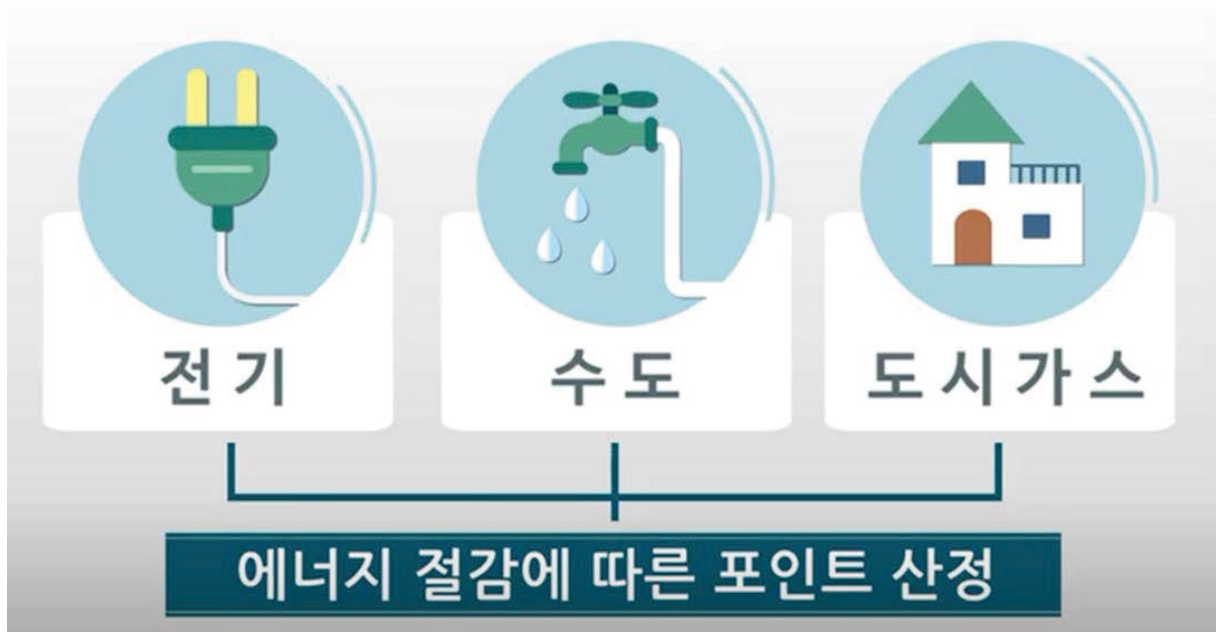
문 의 : 환경사목부 032-765-7255

4/19	세계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략 조강희(환경공단 기후대기 본부장)
4/26	석탄발전, 핵발전소의 현재와 미래 김준한 신부(부산교구생태환경위원장/ 남산성당 주임)
5/3	탄소 감축 지름길, 밥상에 있다 이윤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
5/10	교회내 햇빛발전소의 가능성 -대전 갈마동 성당 사례 중심- 최경해(불휘햇빛협동조합 운영위원장)
5/17	자원 순환으로 행복 순환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5/24	회칙<찬미받으소서>를 사는 교회의 이모저모 전의찬(세종대교수, 기후환경융합센터장)
5/31	탄소배출도 줄이고 땅도 되살리는 자연농업 이창현(금구유한회사 자연농업 대표) 파견미사(수료식 포함) 정성일 신부(사회사목국장)

부록7)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국민 프로그램
(서울 제외)
- 주관: 한국환경공단(2009~)
- 인천교구와 인천공단 업무 협약(2020.11.24)
- 내용: 신청 후 전기, 수도, 도시가스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하면 환급을 받는다.(연 2회)
- 신청방법: 1) 인터넷 2) 모바일 앱 3) 서면 신청(행정복지센터 혹은 한국환경공단)
 - 인천교구: 각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사무실에 제출,
사무실에서 취합하여 환경공단으로 발송함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1. 경찰 · 교정사목부
2. 생명사목부
3.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4. 이주해양사목부
5. 정의평화위원회 · 노동사목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경찰 · 교정 사목부

실행목표 (7가지)	경찰사목부 내용	교정사목부 내용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오염된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경찰의 역할 모색 ② 경찰 내 천주교 종교모임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 공감 및 방향모색	① 구치소 내 천주교 종교모임을 통해 환경오염 심각성 공감 및 방향모색 ② 수감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순교 방안모색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코로나 19로 인한 실질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 ② 부당한 실직, 무급휴직, 임금삭감 등으로 -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	① 구치소내 물질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 ② 출소 이후 재정적 자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심
3. 생태 경제학	① 비환경적,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강경 대응	① 출소자 등 사회약자들에게 평등한 기업문화 조성
4. 검소한 생활양식	① 녹색순교 제안 (경찰서내 일회용품 줄이기) - 주 1회 채식하기	① 수감생활 안에서 녹색순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천방안 모색 ② 출소 이후 일회용품 안쓰기, 육식생활 줄이기 등의 실천
5. 생태교육	① 경찰서 방문미사와 교우회 모임을 통한 생태 교리교육	① 구치소 방문미사를 통한 생태 교리교육
6. 생태영성	① 경찰 교우회 생태 영성 피정 및 캠프	① 교구 내 생태사도직 단체 등록 및 활동 방향 제시
7. 지역, 국가, 국제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① 경찰서장 및 지방청장과 소통 및 의견 제시 ② 지역내 친환경 단체와 연대 전국 경찰 사목자 모임과 연계해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 공감과 가능한 방향 모색	① 구치소장 및 교도관들과 소통 및 의견 제시 지역내 친환경 단체와 연대 ② 전국 교정 사목자 모임과 연계해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 공감과 가능한 방향 모색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생명사목부

실행목표 (7가지)	내 용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훼손된 지구의 현재 상황의 심각성 인식> 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명 교육 안내 ② 지구의 훼손이 결국 인간이 훼손된다는 환경 교육 안내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 ① 비가톨릭계 병원(인천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부천 세종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가온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와 이들을 진료하고 도와주는 의료진, 봉사자를 위한 병원 원목 활동 ② 취약계층의 장기이식수술비 및 난치병 수술비 지원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 미혼부 후원 ④ 해외 난민 돕기 (한국 카리타스와 연계)
3. 생태경제학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개념의 경제 활동 전개> ① 비윤리적, 반생명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명단 공유 및 불매 권고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동물실험,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 착취 등)
4. 검소한 생활양식	<생명나눔 운동 전개> ① 장기 기증 희망 신청을 받아 생명나눔 운동 전개 (헌혈증, 제대혈, 조혈모세포 기증 운동 포함) ② 생명나눔 운동을 위해 자신의 건강한 생활 유도 (금연, 절주, 약물 남용 금지, 자살 예방 교육 개설)
5. 생태교육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식> ① 우리의 몸을 돌보고 그 의미를 존중하는 생태론적 인간 생명교육 진행 ② 틴스타 교육이 지향하는 인격적 성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 (태아의 생존권 보호 및 낙태 예방 교육) ③ 자신의 생식력을 이해하여 실천하도록 도와줌 (자연주기법 교육)
6. 생태영성	<현대 인간 중심주의 사상의 문제점 전파> ① 돌봄의 문화 전개 (성경에서 말하는 '지배'(창세 1,28)에는 '일구고 돌보아 한다.'는(창세 2,15)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 모든 생명체에는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인식시킴)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 ① 모든 계층과 모든 분야에 전달될 수 있는 동시다발적 생명 존중 운동 전개 ② 빈곤 퇴치와 소외된 이들의 존엄 회복 운동이 자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임을 인식시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실행목표 (7가지)	내 용
1. 지구의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오염된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 ① 생명농업 실천 농민 발굴 및 확대 ② 생명다양성 보호를 위한 토종 종자 보급, 경작, 소비 ③ 우리농 본당 나눔터 확대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빈곤층에게 먹거리 평등권 보장>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명농산물 꾸러미 지원 ② 소농과 청년농을 위한 영농자금 및 농지 지원
3.생태경제학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 ① 계약생산 책임소비 품목 확대. ② 운영 이익금 중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
4. 검소한 생활양식	<우리의 삶을 생태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 ①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 ② 아이스 팩, 아이스 박스 재활용 ③ 주1회 채식하기 ④ 소포장 판매 방식 추구
5. 생태교육	<생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① 도시민의 유기농 텃밭 및 본당 공동체 텃밭 가꾸기 ② 모든 대상의 생태교리교육 ③ 내 아이를 위한 바른 먹거리 교육 ④ 생태 귀농 학교
6. 생태영성	<소비의 삶에서 생태적 삶으로 전환> ① 교구 생태사도직 단체 등록 및 활동 방향 제시 ② 생태 영성 피정 및 캠프 ③ 생태 사도직 활동가 양성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연대> ① 지역 아동 교육기관에 생명농산물 보급 ② 지역 내 친환경 농업 단체 등 유관 단체와 연대하기 ③ 북한에 친환경 퇴비 지원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이주해양사무부

실행목표 (7가지)	내 용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전세계 해양사무 스텔라마리스와 연계해 해양 환경에 대한 문제성 공감과 개선 가능한 방향 모색(예: 방사능 폐수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비자 만료 후 미등록 상태인 외국인 노동자 지원 ②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돌봄 ③ 전세계 해양사무 스텔라마리스와 연계한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독려 ④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소 운영 재개
3.생태경제학	①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개념으로 국내 기업 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 및 착취하는 기업 공유 및 불매
4. 검소한 생활양식	① 미니멀리즘 홍보 (불필요한 물품 구매 최소화, 허영심 버리기, 만족하는 삶) ② 녹색 순교 제안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대중교통 이용, 전기사용 줄이기)
5. 생태교육	① 인천교구 관할 지역 내 중남미, 필리핀, 베트남 공동체 미사 강론 시간을 할애하여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에 관한 교육
6. 생태영성	① 창세기의 7일 창조 순서에 맞게 매일 피조물을 위한 기도와 피조물을 잘 돌보지 못한 역사에 대한 회개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① 전세계 해양사무 스텔라마리스와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 제시 ② 국내 환경 단체,특히 해양 환경 단체와 연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정의평화위원회 · 노동사목부

실행목표 (7가지)	내 용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대체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정책 압박 활동 ② 환경파괴 7위의 나라로서 석탄 발전 및 핵발전을 줄이고(나아가 없애고)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정책적 압박의 활동을 한다.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가난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 증대 ②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와 청년 실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생태경제학	① 자본주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② 소비 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의 삶 ③ 소유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④ 캠페인 활동
4. 검소한 생활양식	① 노동자들과 함께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양식을 나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이외에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다.
5. 생태교육	① 사회교리적 접근으로 타 부서와 연대활동, 청년교리, 청소년 교리 등에 사회 교리 접목, 찬미받으소서 교육
6. 생태영성	① 일반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되려면 그 뿌리가 되는 영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찬미받으소서에서 영성을 언급하는 이유이기에 찬미받으소서의 영성적 의미를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① 다양한 선전전 기획, 노동현장에서의 홍보 등을 통한 친환경 기업활동으로 변환 촉구

부록9)

[자의교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 설립에 관한 자의 교서

인간 발전

(Humanam Progressionem)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 교회는 그 존재와 활동에서 복음에 비추어 온전한 인간 발전을 촉진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의, 평화, 창조 보전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돌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는 이러한 가치를 촉진하는 자기 직무에서 협력 기구들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그들이 돌보아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성좌가 위에서 언급한 분야만이 아니라 보건과 자선 활동 관련 분야를 돌보도록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를 설립합니다. 이 부서는 특히 이민, 궁핍한 이들, 아픈 이들, 배척된 이들, 사회적으로 차별된 이들, 무력 분쟁과 자연 재해의 희생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업자들, 모든 형태의 노예살이와 고문의 희생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새 부서는 본인이 오늘 잠정 승인한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를 통합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1일에 기존의 4개 부서들은 그 직무를 정지하고 폐지됩니다. 그리고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의 제142-153조는 삭제됩니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정해진 모든 것이 온전하고 확고한 효력을 지니도록 결정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이 자의 교서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선포하고,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발표할 것을 명령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4년

2016년 8월 17일

자비의 희년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2020년 5월 24일 - 2021년 5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공동의 집에 관한 관심을 온 세상에 촉구하시고자, 2015년 5월 24일에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를 반포하시어 참다운 이정표로 삼으셨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이 회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난 흠집”(「찬미받으소서」, 163항)은 극지방 만년설의 해빙에서 시작하여 아마존의 맹렬한 불길 확산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극한 기후 현상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구조 자체를 지탱해 주는 생물 다양성의 유례 없는 감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지구에 난 이 다양한 흠집은 너무도 분명하고 심각해서 더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찬미받으소서」, 160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예언자적 말씀이 우리 귓가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생태 훼손으로 이미 가장 먼저 심각한 희생을 당한 이들은 바로 전 세계 가난한 이들의 공동체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 앞에서 더 이상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또 다른 결정적 순간에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반포 5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은 하나의 분수령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이 회칙은 2015년 당시 못지 않게 오늘날에도 예언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배려와 형제애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공동의 여정에 나침반이 되어 줄 도덕적 영적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이는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승화시켜, 사랑과 연민과 연대로 일치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의 탄생과, 우리 공동의 집인 자연과 맺는 더욱 조화로운 관계의 탄생을 가져다줄 특별한 기회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우리가 모두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의 문제들이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에”(「찬미받으소서」, 137항), 감염증 확산 이후의 세상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한해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기쁘게 선포합니다. 본 부서는 이 특별 기념의 해와 그 다음 십 년이 참으로 은총의 시간, 곧 지구와 인류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참된 때(*kairós*)를 경험하는 ‘희년’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특별 기념의 해는 2020년 「찬미받으소서」 주간으로 시작되어, ‘생태적 회개의 실천’을 명백히 강조하는 일련의 공동 계획들로 이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참여하도록 모든 이를 초대합니다. 이 상황의 시급성은 지역, 국가, 세계를 망라하는 모든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총체적이며 일치된 응답을 요구합니다.

특히 풀뿌리 ‘대중 운동’, 곧 선의의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상기 시켜 주셨듯이,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14항).

이에 따라, 본 부서는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경축을 위한 계획안들을 제시합니다. 이 계획안들은 추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여 줄 것과 아울러 여러분 지역 공동체 나름의 축하 행사도 추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미받으소서」주간’ 전 세계 거행(2020년 5월 16-24일)

‘지구와 인류를 위한 공동기도’

(2020년 5월 24일 정오, 세계 각지에서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찬미받으소서」의 시행 지침을 담은 교황청 부서간 상호협력 문서’ 발표(2020년 6월)

「찬미받으소서」의 평가와 나아갈 길

(2020년 6월 18일, 회칙 반포 5주년 기념 웹 세미나[Webinar])

피조물을 위한 기간(Season of Creation)(9월 1일 - 10월 4일)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보는 부서 소개(2020년 가을, 웹 세미나 시리즈)

글로벌 교육 연맹(Global Educational Alliance)의 재창안 (2020년 10월 15일)

‘프란치스코의 경제’ 회의(2020년 11월 21일)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 제3차 바티칸 원탁회의 (2021년 1월 26-29일)

종교 지도자 모임(안)(초봄)

세계 물의 날 (2021년 3월 22일)

「찬미받으소서」 특별기념의 해 폐막 행사

특별 기획회의(2021년 5월 20-22일)

전 세계 청년 성가대와 함께하는 뮤지컬 “찬미하라”(Laudate)

「찬미받으소서」 다개년 행동 플랫폼 출범

특별 기념의 해에 출범할 특별 기획

「찬미받으소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찬미받으소서」 살아 있는 경당’: 피조물 보호를 위한 국제 플랫폼

「찬미받으소서」 연구소 관계망(Laudato Si’ Institutes Network: LISTEN)

「찬미받으소서」 나무 심기 사업(2020년 5월 10일 젊은이들 주도로 출범)

에코(ECHO): 우리 공동의 집, 지구(ECHO: Earth, Our Common Home)

(「찬미받으소서」에 관한 영상 공연)

플라스틱 은행: 플라스틱 오염과의 투쟁

2020 성경 콘테스트(「찬미받으소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소셜 미디어로 펼쳐는

성경에 관한 제1회 세계 콘테스트)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찬미받으소서」의 통합 생태론의 정신을 따라
온전히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찬미받으소서」 다개년 행사 계획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동안, 다양한 단체들은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따라 온전한 지속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시작할 것을 공약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추진할 것이다.

1. 「찬미받으소서」 가정: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가정)
2. 「찬미받으소서」 교구: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교구/본당)
3. 「찬미받으소서」 학교: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학교)
4. 「찬미받으소서」 대학교: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대학교/대학)
5. 「찬미받으소서」 병원/보건소: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병원/의료 시설)
6. 「찬미받으소서」 기업/농업 등: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기업/농업)
7. 「찬미받으소서」 수도회: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수도회/수도 관구)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통합 생태론 평가하기
(「찬미받으소서」의 목표)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화석 연료를 줄이기,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기, 모든 이가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등)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원주민 공동체, 이민, 신종 노예의 위험에 놓여있는 어린이 등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임신[受精]에서 죽음까지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3. **생태 경제학**(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 무역,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화석 연료와 지구와 사람들에게 해로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철회, 재생 에너지 투자 등)
4. **검소한 생활 양식** 채택(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절제, 곧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삼가기,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기르고 육류 소비를 줄이기,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해를 일으키는 교통 수단 이용 삼가기 등)
5. **생태 교육**(생태적 인식을 진작하고 그 구체적 행동을 복돋우며 젊은이들과 교사들과 교육계 지도자들의 생태적 소명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통합 생태론에 비추어 교육 과정을 재검토 재정립하고 교육 기관들을 개혁해 나가기 등)
6. **생태 영성**(하느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회복하기, 경탄과 찬미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을 더 많이 접하도록 장려하기, 피조물에 중점을 둔 전례 거행 촉진하기, 생태 교리 교육, 기도, 피정, 교육을 개발하기 등)
7.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장려하기, 지역과 이웃 생태계 안에 생태 의식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장려하기 등)

***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의 실행**

우리는 앞서 언급한 기관들을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라 통합 생태론의 7년 여정에 착수하도록 초대하면서, 2021년 초부터 「찬미받으소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다음 해인 2022년에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그룹이 이 7년 여정을 시작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해가 갈수록 그 전해에 비해 이 여정에 참여하는 그룹의 수가 계속 두 배씩 늘어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찬미받으소서」에서 영감을 받은 관계망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관계망이 해마다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되고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10년 동안 해마다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에서 촉구하신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찬미받으소서」 상 제정과 「찬미받으소서」 시상 계획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활동을 격려하고 증진하고자,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최고의 실천 노력들 가운데 일부를 치하하고자, 우리는 2021년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찬미받으소서」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찬미받으소서」 우수 지도자

「찬미받으소서」 우수 국제 지도자

「찬미받으소서」 우수 지역 활성화

「찬미받으소서」 우수 가정

2. 「찬미받으소서」 우수 교육 기관

「찬미받으소서」 우수 학교

「찬미받으소서」 우수 대학교/대학

4. 「찬미받으소서」 우수 신앙 공동체

「찬미받으소서」 우수 본당

「찬미받으소서」 우수 교구

「찬미받으소서」 우수 수도 공동체

5. 「찬미받으소서」 우수 활동 사업

「찬미받으소서」 우수 대중 운동

「찬미받으소서」 우수 청년 사업

6. 「찬미받으소서」 우수 경제/금융/기업/보건/노동/농업

(순환과 나눔의 경제, 재생 농업, 총체적인 건강 증진 실천 등의 분야에서)

7. 「찬미받으소서」 우수 커뮤니케이션 사업

(학술 발표, 예술 작품 등)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4항).

부록11)

한국 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2020년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백성에게 참으로 아프고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와 방역을 위하여 봉사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느님의 도움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에서 코로나19로 이어진 감염증 확산 사태는 현대 물질문명이 큰 전환기에 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사회의 모든 소통과 활동과 관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단순히 의학적, 경제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현대 문명 전체의 구조와 균형 안에서 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산업 혁명 이후 인간이 자연을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소비하고 폐기해도 되는 소유물로만 보고 피폐시키고 약탈해 온 결과입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견하며 현대 물질문명의 폐해를 명백히 지적한 예언적 가르침이었습니다. 회칙 서두에서 교황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그리고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인 지구가 황폐해지고 울부짖고 있다며 비탄하셨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참조). 이 회칙은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찬미받으소서」, 160항)라는 엄중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 모두 ‘생태적 회개’에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칙이 반포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 지구는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지구 생태계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울부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후 위기 상황과 우리나라의 안이한 대처

2018년 10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제48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1.5도 특별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퍼센트로 줄여야 하며,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이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원래 기후로 되돌아갈 수 있는 탄력을 잃어버려 결국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적인 분석 기관인 ‘기후 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2016년에 우리나라를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하였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는 기후 변화에 무책임하고 나태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까지도 화석 연료에 따른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7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친환경 뉴딜 정책에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이산화 탄소 배출의 획기적인 감축 전망과 전략은 찾아볼 수 없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녹색 성장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별 기념의 해와 7년 여정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한 해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2022년부터는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출범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지역 교회의 가정, 본당과 교구, 수도회, 학교, 병원, 기업과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 7년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2020-2021년의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와 그 다음 이어지는 7년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kairós)’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활동

내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의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께서는, 조선의 백성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천연두의 유행으로 어린이들이 죽어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 병을 퇴치할 처방을 알려 달라고 프랑스 선교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도 비위생적인 물 때문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과 백성을 위하여 물을 정화하는 처방을 알려 달라고 프랑스 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초대 교회의 두 기둥은 고통과 환난에 시달리는 양 떼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도 그 동안 생태계 안에 아로새겨진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자 ‘환경의 날’, ‘농민 주일’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등에 지속적으로 담화를 발표하며,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안내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2020년 5월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기념하며 “기후 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회개와 다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에 귀를 기울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마태 28,18-20 참조)는 교회의 선교 사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기후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과 피조물들의 고통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힘 있는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희생되는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지 못하였으며, 생태계 파괴 현장을 보면서도 피조물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찬미받으소서」, 52항)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며 복음을 선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과제

우리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파멸로 치닫는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식 없이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며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해 왔던 나날을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 교회와 한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희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후 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교구는 사목 교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각 본당과 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교구와 단체에서 수행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생태적 회개’는 현시대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이며, 피조물 안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가 단지 ‘환경 보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모후이신 성모님!

이 칠후 같은 어둠의 시간에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를 저버리지 마소서.”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 총회를 마치며

2020년 10월 16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부록12)

특별 사목 교서 실천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교황님의 뜻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실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가정과 본당, 교구,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실천해야 하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체 및 공동체 별로 실천해야 할 방안들은 앞으로 계속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 지침들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년에 반포하신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전망 안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2010년에 발간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지침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해 가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차 례

1. 가정 공동체의 실천 지침 ----- 4
 - 1)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
 - 2) 실천 사항
 - ① 생태적 기도
 - ② 쓰레기
 - ③ 에너지
 - ④ 식생활 습관

2. 본당 공동체의 실천 지침 ----- 6

- 1) 본당 공동체의 중요성
- 2) 실천 사항
 - ① 사목 협의회
 - ② 본당 봉사자
 - ③ 전례분과
 - ④ 청소년분과
 - ⑤ 청·장년회 및 노인분과
 - ⑥ 여성분과
 - ⑦ 생태환경분과
 - ⑧ 우리농촌살리기운동

3. 교구 공동체의 실천 지침 ----- 9

- 1) 교구 공동체의 중요성
- 2) 실천 사항
 - ① 사목 평의회
 - ② 사회 사목국
 - ③ 교육국, 청소년국
 - ④ 관리국, 재정관리 위원회
 - ⑤ 건축 위원회
 - ⑥ 축성 생활회

4. 사회 공동체의 실천 지침 ----- 12

- 1) 모든 신자의 생태 사도직 참여
- 2) 직업에 따른 다양한 역할
 - ① 정치인
 - ② 공무원
 - ③ 과학자
 - ④ 교육자
 - ⑤ 노동자
 - ⑥ 기업인
 - ⑦ 농업인
 - ⑧ 어업인
 - ⑨ 자영업
- 3) 이웃 종교
- 4) 타 교파와의 협력
- 5) 시민 단체와의 연대

1. 가정 공동체의 실천 지침

1)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

생태적 삶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 주는 법을 처음 배웁니다. 예를 들어, 사물의 올바른 사용, 질서, 청결, 지역 생태계 존중, 모든 피조물 보호를 배우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13항 참조). 가정의 변화는 사회와 세상 변화의 시작이자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어린이들이 하느님 창조의 신비와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 섬세하게 배려하는 자세를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 부모들은 끊임없이 창조 질서에 관한 교회의 사회교리를 배우고 신앙으로 고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 창조의 일꾼으로서 피조물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듯이, 병들어 신음하는 생태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과는 달리 ‘기도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기도한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 부합한 행동을 동시에 요청하므로, 가정에서부터 하느님의 창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바로 창조 질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2) 실천 사항

① 생태적 기도

- 생태적 기도는 관계성 회복의 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관계(relation, relationship)’라는 단어를 70회 이상 사용하십니다. 관계는 피조물 세계의 본질입니다. 관계는 창조의 본질이며, 창조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안에 드러난 관계의 신비를 관상하면 생태계 전체는 창조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찬미받으소서」, 87항).

- 생태적 기도는 자연과 환경보호만을 추구하는 녹색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와 함께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육화의 기도입니다.

- 생태적 기도는 지구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과의 상호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안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경배하는 우주적 기도입니다.

- 생태적 기도는 일상의 모든 순간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통합적 기도입니다.

- 생태적 기도를 위해서는 양심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선물하셨기에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포기하고 누가 보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20항).

- 생태적 기도를 통해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찬미받으소서」, 222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비주의에 물들었던 삶에서 탈피

하여, 물질적으로는 검소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황폐해진 피조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② 쓰레기

- “해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맹독성이며 방사능이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1항). 쓰레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언어 쓰레기, 행동 쓰레기, 생각 쓰레기, 정보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범주를 물질에서부터 의식과 감정까지로 넓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찬미받으소서」, 22항).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문화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들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③ 에너지

- “많은 과학적 연구는 최근 수십 년간의 지구 온난화가,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곧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 질소와 같은 화학 물질들의 농도가 매우 짙어졌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찬미받으소서」, 23항).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편리함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 7층 이하는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며, 환승역도 걸어보십시오.
- 무엇보다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일과 이동을 줄여 에너지의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 실내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않고, 자연 채광이 어디에 있는지 둘러보십시오.

④ 식생활 습관

- 근거리 농산물(로컬푸드)을 이용하십시오. 수입 농산물은 먼 거리에서 이동해 오기 때문에 그만큼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해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며, 방부제의 과다 첨가로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육식보다는 채식을 생활화하십시오. 농지의 83%가 가축 사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58%가 동물성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이에 서유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류세 도입 및 관련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런던의 골드스미스대학은 캠퍼스에서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쇠고기를 퇴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작년부터 교육부 행사에서 채식이 기본 식단이며, 고기나 생선은 요청할 때만 제공합니다.

현대 세계의 엄청난 자연 파괴는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가지려는 인간의 무절제한 소비주의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소비주의 생활양식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되고 끝내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미래 세대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동식물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한다면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찬미받으소서」, 212항).

2. 본당 공동체의 실천 지침

1) 본당 공동체의 중요성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가톨릭 신자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본당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생태적 활동은 본당 직무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소수의 봉사자들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본당 사목자와 신자들 모두는 소속 단체와 위원회를 통해 유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비전을 찾고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2) 실천 사항

① 사목 협의회

- 본당의 사목 협의회는 본당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본당 공동체의 목자인 주임 신부의 자문 및 의결기구로서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 본당의 사목 협의회는 ‘생태적 회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되, 기도와 교육 및 실천의 차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본당 봉사자

- 본당 봉사자들은 창조 질서 보전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본당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본당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가운데서 사제직과 봉사직에만 머물지 말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예언직을 충실히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 본당 봉사자들은 창조 질서 보전을 본당 안에서 촉진시키기 위해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 특히 생태적 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③ 전례분과

- 성찬례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위한 빛의 원천이며 동기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찬미받으소서」, 236항)고 일깨웁니다. 곧 성사 생활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 전례 안에서 ‘생태적 회개’에 대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피조물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는 생태적 기도를 전례 안에서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 전례 안에서 거행되는 성사(聖事)가 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의 비상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책임과 평화 및 창조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십시오.

④ 청소년분과

- 주일학교 교육 과정에 성경에 나타난 창조론과 생태적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강화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에게 물과 공기, 불, 지구, 동물 등 자연과 접촉하며 느끼는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보다 인격이 완성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청소년 캠프와 피정을 준비할 때, 자연 안에서 창조적이고 사회적이면서도 영성적인 양식을 얻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창조의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자연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도록 용기를 줍니다.
- 생태적 회개와 관련된 주제로 노래 대회나 글짓기,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 생명을 돌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나무 심는 운동을 실천합니다.

⑤ 청·장년회 및 노인분과

- 청·장년회 및 노인대학의 교육 과정에 '생태적 회개'에 대한 강좌가 필요합니다.
- 본당 안에서 활동하는 청·장년회 및 노인분과에서는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순환 방식을 도입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22항 참조). 현재의 경제체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부추겨서 이익을 얻지만 폐기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폐기물들의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순환형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본당의 시설분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당 공동체가 녹색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 본당 공동체에서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기”(「찬미받으소서」, 49항) 위하여, 시설의 여유 공간이나 지역 사회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⑥ 여성분과

- 한국 교회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 신자이며, 본당에서도 여성 신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성분과(자모회, 성모회 등)에 대한 생태적 교육을 통하여 본당 안에서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여성분과 안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생태-여성 신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합니다. 생태-여성신학은 인간 중심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신성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여성분과에 있는 여성 신자들이 창조 질서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받고 가정과 본당 및 사회 안에서 중요한 여성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목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⑦ 생태환경분과

- 본당 사목 평의회 산하에 '생태환경분과'를 설치하여 생태 문제를 담당하게 합니다.
- '생태환경분과'의 담당자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생태 문제와 연관된 모든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 본당 차원의 각종 행사도 친환경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생태환경분과'는 창조 질서와 연관된 공동체의 관심 사항을 본당 사목평의회의 의제로 제

기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⑧ 우리농촌살리기운동

- 창조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먹거리입니다. 생태적회개 운동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는 음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본당 신자들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본당 주일학교에 제공되는 간식과 먹을거리들을 친환경적인 생명의 먹을거리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본당 공동체 안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설치하여 생태적 교육의 효과가 본당 안에서 직접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3. 교구 공동체의 실천 지침

1) 교구 공동체의 중요성

교구 공동체는 하느님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구장과 그 목자적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제들 그리고 수도자들과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구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은 교구장의 사목 지침에 따라 개별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구공동체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그리고 사도좌와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결속을 이루어, 하나이고 보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도좌는 2022년부터 온 세계가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여정을 출범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각 지역의 교구 공동체도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사도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시작되는 7년간의 여정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kairós)’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준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구 공동체는 앞으로 7년간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kairós)’를 준비하면서 교구 단위의 창조 질서 보전 활동을 주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전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많은 교구에 설립되어 있는 ‘환경사목위원회’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각 본당의 사목평의회 환경 관련 분과의 담당자와 소속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구 안에서 매년 ‘생태적 실천 모범 본당’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이 교구 안에서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을 만큼 정착한다면, 이 상을 통해 본당 공동체가 같은 생태 정신으로 단합하고 생태적 삶의 모범으로 자극받으며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사목 전담 기구의 책임을 맡은 사제들이 교구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조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구의 사목 정책이나 재산 관리 등 모든 일들이 친환경적으로 결정, 실행될 수 있도록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판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자들에게 환경문제를 신앙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사 환경 담당 사제들만의 몫이라기보다는 모든 사제가 관심을 두고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신자에게 골고루 성숙한 창조 신앙의 실천과 그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천 사항

① 사목 평의회

-사목 평의회는 ‘생태적 회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되, 기도와 교육 및 실천의 차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목평의회는 각 교구의 모든 국과 위원회의 고유한 사도직 안에서 ‘생태적 회개’에 대한 영성이 구체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② 사회 사목국

-“인간에 대한 온유, 연민,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의 다른 피조물과도 깊은 친교를 올바로 느낄 수 없습니다”(「찬미받으소서」, 91항).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빈곤,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각 교구의 사회 사목국 산하에 있는 정의평화, 노동사목, 환경사목, 노인복지, 빈민사목, 이주사목, 사회복지회, 병원사목, 교정사목 등 모든 위원회는 창조 질서 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각 위원회의 고유한 사도직 안에서 ‘생태적 회개’가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사회 사목국 안에 있는 각 위원회들이 정기적인 회의와 만남을 통해 ‘생태적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③ 교육국, 청소년국

-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생태적 회개’를 위한 노력에서, ‘동기 부여와 교육 과정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찬미받으소서」, 15항 참조)고 확신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은 학교, 가정, 커뮤니케이션 매체, 교리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영역”(「찬미받으소서」, 213항)을 모두 포괄하는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 각 교구의 교육국은 생태환경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태적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교구청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본당과 기관,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관리 및 사무 직원, 사제관 식복사, 제의방 봉사자들에게도 생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모든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치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연과 환경과 맺은 관계의 치유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찬미받으소서」, 119항). 교구 내의 모든 단체의 교육 안에 ‘성교육’(나 자신과의 관계), ‘정치교육’(사회와의 관계), ‘생태교육’(자연과의 관계)이 통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계획합니다.

- 각 본당의 주일학교와 예비신자 교리교육 과정에 창조 질서 회복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교재를 편찬해야 하고 강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대신학교 교과 과정과 사제 평생교육 안에도 창조 질서에 관한 내용이 정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④ 관리국, 재정관리 위원회

- 재정관리 위원회는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면, 현세 재물에 대한 애착을 조절하기 위해서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하고, 이웃의 권리를 보호하고 … 정의의 덕을 실천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407항)는 교회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 교구의 자산이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에 있다면 철회(Divestment)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화석연료 기업이 문제라면 그러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 교구의 재정을 계획하고 운용할 때에는, 형제성/공동선의 원리, 생태 영성의 적용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교구의 재정 집행은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부합한지를 평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구 차원의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⑤ 건축 위원회

- 건축 위원회는 성경에 나타난 생태적 교회 건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학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건축 위원회는 교회 건물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건축 위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과 자연에 어울리는 형태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 건축 위원회는 교구 내의 성당 신축과 개축 등에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 특히 사제관이나 본당 사무실, 교구청이나 교육관 등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빗물 저장 저수조 시설을 갖춘 성당이나 교회 건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⑥ 축성 생활회

- 수도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약화되고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자들은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은수 생활은 관상적 체험을, 수도승 생활은 공동체 체험을, 탁발 수도회는 복음적 청빈과 설교를 세상 한가운데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 현대의 수도 공동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겪으면서 규율과 수덕과 윤리적 차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수도생활 안에서 거의 사라진 예언자적 전통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 예언자적 전통은 종교적 세계를 정(淨)한 것과 부정(不淨)한 것이라는 범주를 갖고있는 경신례 전통과 다르게, 은총과 정의 그리고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합니다. 수도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체험과 복음적 맛이 있는지 가장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 수도 공동체는 교회 건물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성소자 부족 현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음적 가난과 육화의 창조성을 되살릴 수 있는 신학적 의미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 수도 공동체는 각 수도회 안에서 창조 질서 보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자를 임명하여, 수도회 내부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4. 사회 공동체의 실천 지침

1) 모든 신자의 생태 사도직 참여

교회가 현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 질서의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도 신자들은 생태사도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직업에 따른 다양한 역할

① 정치인

신자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권력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느님뿐입니다. 따라서 신자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그들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사회 교리를 배워야 하며,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늘 염려해야 합니다.

특히 신자 정치인들은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더 큰 책임감, 더 강한 공동체 의식, 특별한 보호 능력, 더 많은 창의력”(「찬미받으소서」, 179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선언해 법률로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회 또한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할 특별기구 설치와 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신자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② 공무원

신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우리의 금수강산이 오염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생태 위기 극복의 막중한 책임도 함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③ 과학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창조의 신비를 학문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능력이 하느님 창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염과 파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 뿐만 아니라, 온난화와 이상 기후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④ 교육자

인간 세상의 발전은 교육의 힘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올바른 교육의 결과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 질서 회복의 중대성과 당위성

을 깨닫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각종 형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종사하는 신자 교육자들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교육의 선봉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⑤ 노동자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기완성과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창조사업에 협조자로서 참여합니다. 곧, 노동 안에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느님 모상’으로서 인간의 위상이 잘 드러납니다. 이 점을 망각하고 인간 스스로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위한 일종의 ‘봉헌’임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⑥ 기업인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 창조사업의 제 일선에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생산 활동은 생태계 파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산 활동의 직접적 결과로 공기와 물과 땅이 오염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양심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준수하고, 자연의 파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⑦ 농업인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심각하게 위험한 수준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의 비율도 최저로 떨어졌으며 대부분 노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뜻있는 사람들이 귀농하여 생태 유기농업의 씨앗을 뿌리고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 희망적입니다. 정부와 교회도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농업인 스스로도 생명 농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느님 창조사업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어업인

어업인의 경우도 농업인에 비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날로 오염되어 가는 강과 바다는 청정 수산물과 해산물을 공급하는 일을 무척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첫째자들을 떠올리면서, 어업 활동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강과 바다에서 창조의 신비와 직접 대면할 수 있고, 그 수확물을 거두는 신성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 어업인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강과 바다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⑨ 자영업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매우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문제까지 신경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는 사랑의 수단이므로, 신앙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창조 질서 회복을 염려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앙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3) 이웃 종교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인들의 상호 협력도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공통 관심사는 ‘생명의 가치’,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는 같은 목표 아래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는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층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타 교파와의 협력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교회 일치 차원에서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본당 차원에서도 생태 문제는 갈라진 교회의 신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한층 개방적이고 대화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시민 단체와의 연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시민 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직접 참여하거나 시민 단체의 환경 운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시민 단체의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는 열정적으로 공동선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하여 투신하는 그들을, 교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제 1판 1쇄 발행 2021년 5월

발행: 정신철 주교(인천교구장)

편집: 정성일 신부(사회사목국장)

표지그림: 문 마리루치아 수녀(노틀담수녀회)

발행처: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부

주소: 인천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번지 천주교 인천교구청 사회사목센터

전화: 032-765-7255



“하느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가끔 용서 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스페인 속담
교황 프란치스코 인용